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51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음 7월 27일) 제23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현역 의원 대항마 대거 포진

### 제21대 총선 누가 뭐냐? ② - 군산·익산

4년 전 태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창당 2년 만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당된 데 이어 민주평화당도 둘로 갈라졌다. 바른미래당도 내용이 불면서 전북 지역 정치와 선거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각 정당들 간 3~4강 체제로 재편될 지, 범보수 진영의 세 확산에 맞선 정책적 연대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 내 호남 의원들 사이에 제3세대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사너치가 얼마나 날 것인가도 무시 못 할 변수다. 선거제도와 지역구가 어떻게 축소될 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이란 관측엔 이견이 없다. 내년 총선엔 선거구를 앞두고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이 누구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 ▲군산

군산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49)이 재선의원으로 또이리를 들고 있다. 변호사인 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40대 기수 톤으로 세대교체를 이루는데 성공했지만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이 바뀌 꺾이지 않은 사신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맞설 후보군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영대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51)과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정룡 전 군산대 총장(66)이 유력 대항마로 거론된다.

신 부회장은 최근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으며 김 의원과 일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운태 고려대 교수(55), 조성원 변호사(43),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59), 문택규 민주당도당 공명선거실천위원장(65)이 스타트 라인에서 몸을 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맞설 중량감 있는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 의결 전 청와대 대변인(55)이 허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유다.

특히 물밑에선 민주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출마 후보군으로 내세우기 위한 영입 전에 나설 것이

#### ▲군산 - 김관영 의원에 맞설

후보군으로 신영대 등 거론  
김의결 전 靑 대변인 허마평

▲익산 - 김수홍·고상진 등  
각각 민주·평화 후보 부상

▲익산을 - 한병도 전 靑 수석  
현역 조배숙 의원 대항마에

란 예상이나 오지만 시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이밖에 한국당에선 방경미 당협위원장(60)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 ▲익산

익산갑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태풍을 이겨낸 3선 이춘석 의원(56)이 자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당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내 굵직한 보직을 맡으며 인지도 등을 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 소속 차단체장 3연속 부재 책임에 대해 논란을 이어가는 등 이 의원에 대한 무능과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당내 후보군을 보면 차관급인 김수홍 국회의무차장(58)과 김대중

전 도의원(47), 김성중 익산성장포럼 대표(56), 전완수 변호사(53)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시 출신 김수홍 차장은 국회 내에서 전북예산을 지원하는 등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의원 입장에서 당 바깥 도전자들이 오히려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평화당에서는 최근 지역정가에서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45)가 칼을 갈고 있다.

고 교수는 익산갑을 이 의원을 제치고 세대교체 진양지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절절하다.

제 3세대 신당 창당 등 정계 개편과정에서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19대 당시 국회의원을 지낸 정정희(59, 무소속)씨 출마도 점쳐진다.

정정희 전 의원은 익산식품물류센터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전환 등 지역 현안 등에 기여한 내공 있는 후보로 분류된다.

한국당에선 임석삼(62) 당협위원장이 출격준비에 한창이다.

#### ▲익산을

익산은 국내 첫 여성검사 타이틀을 쥐고 있는 5선의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63)이 터를 잡고 있다.

온화한 리더십과 지역민들과의 두터운 소통이 조 의원의 강점이며 6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눈여겨진다.

이에 대항하는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이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지난 17대 30대 후반 나이로 금배지를 거머쥔 저력을 갖고 있는데다 친노·친문의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 전 수석은 익산 석권을 위해 익산갑을 선택한 것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넓은 정치 청사진을 기치로 하는 김연근 원광대 겸임교수(59, 전 전북도의원)와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55)의 출마도 기대된다.

/고민형 기자

## 2019년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2019. 8. 26.(월) 전북도청 중회의실1 전라북도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이 2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청렴한 전북, 맑은 윗물에서부터”

#### 전북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전북도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4급(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송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해 '위로부터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앞서 고위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조직 내 부패근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청렴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반부패·청렴 서약'을 했다.

이어 강사로 초빙된 김병철 전(前)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뿐만 아니라 오랜 공직생활 동안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가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강의를 진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일

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해 기회로 바꾸고 또 기회를 알찬 성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신뢰할 만한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직가장 확립에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반부패·청렴교육, 전(全)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연 2회), 청렴교육 의무 이수시간 강화(5시간)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관심사’

### KTV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에 전북도 정책 소개

외국의 관점, 세계의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KTV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에 전라북도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운영 사업이 소개된다.

한국정책방송원(문화관광체육부 산하기관)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몸소 체험하고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의 정책을 그들의 시각으로 소개하는 특집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운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촬영 협조 요청이 있어 진행됐다.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는 수도권 방문 개별 외국인 관광객의 전북방문 유치 및 한옥마을 등 도내 주요관광지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주 3회(금, 토, 일) 서울부터 전주까지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1만원으로 서울~전주 왕복 버스 탑승과 전북투어패스 1일권(8300원)을 이용할 수 있어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원 춘향제와 정읍 내장산 단풍축제 기간에 추가 운행해 외국인에게 인지도가 낮은 시군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촬영은 25일 오전 8시, 서울 한국관

공사 서울센터 앞에서 칠레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두 명의 학생이 ‘전북투어버스’를 탑승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전주에 도착해 전북투어패스로 경기전 무료입장, 한복입고 판소리체험 및 전북도 관광기념품 구입 특별할인 등 한옥마을 투어를 즐기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성악을 전공하는 칠레 학생은 판소리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즐겁으며, 가을에 고향에서 가족이 방문하면 꼭 전주에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촬영 내용은 오는 9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KTV를 통해 30분간 방영되며, KTV국민방송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